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60-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종교지표 - 2021년: 주요 종교별 국정운영평가,
코로나19 대응평가 비교

2020. 12. 22.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1

종교와 국정운영평가

2020년 이후 국정운영평가, 천주교 신자는 전체 평균보다 높고, 불교 신자는 낮음
개신교 신자와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전체 평균과 큰 차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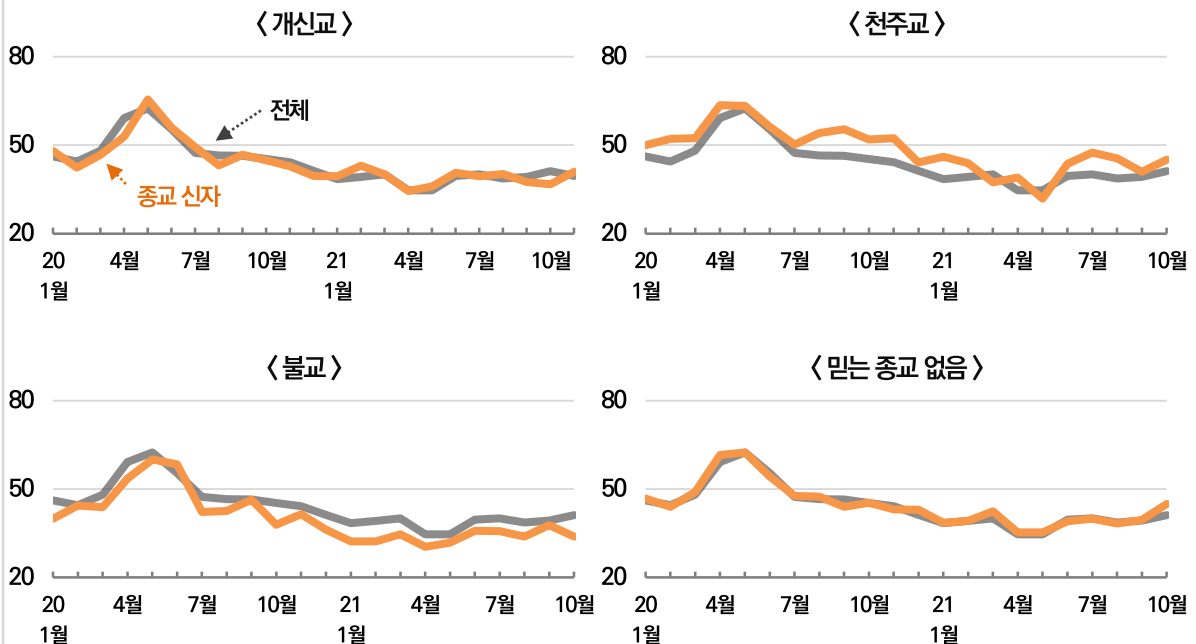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에서 격주 1회 조사하는 국정운영평가를 종교별로 살펴보았다. 각 조사의 유효표본 수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이지만, 종교별 표본 수는 이에 못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 수 확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각 월별 2~3회 진행한 조사결과를 월별로 통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종교별 표본 수는 전체 조사의 표본 수에 비하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결과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020년 4월~6월 코로나19 방역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60% 초반대까지 올라갔으나 이내 하락하였고,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에는 30% 중반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올 6월 이후 국정지지도는 40% 내외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다.

각 종교별 국정운영평가 흐름 역시 이를 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신교 신자와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의 국정운영평가는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천주교 신자의 국정운영평가는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불교 신자의 국정운영평가는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이후 국정운영평가, 천주교 신자는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고, 불교 신자는 약간 낮은 수준
개신교 신자와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전체 평균과 큰 차이 없어

(단위 : %)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매우+대체로 잘하고 있다' 응답. 격주 1회 1,000명씩 진행한 조사를 월 단위로 통합해 재계산.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표본수보다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 기준 각 월별 1,000~3,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20년 이후 각 종교 신자별 국정운영평가(긍정응답 비율)

(단위 : %)

조사기간		전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종교 없음
2020년	1월	46	48	50	40	47
	2월	44	42	52	44	44
	3월	48	47	52	44	49
	4월	59	53	64	53	62
	5월	63	66	63	60	62
	6월	55	56	56	58	54
	7월	47	49	50	42	48
	8월	47	43	54	43	47
	9월	46	47	55	46	44
	10월	45	45	52	38	45
	11월	44	43	52	41	43
	12월	41	40	44	36	43
2021년	1월	38	39	46	32	39
	2월	39	43	44	32	39
	3월	40	40	37	35	42
	4월	35	34	39	30	35
	5월	35	36	32	32	35
	6월	40	41	44	36	39
	7월	40	39	47	36	40
	8월	39	40	46	34	38
	9월	39	37	41	38	40
	10월	41	37	45	34	45
	11월	40	41	48	40	37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매우+대체로 잘하고 있다' 응답. 격주 1회 1,000명씩 진행한 조사를 월 단위로 통합해 재계산.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표본수보다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 기준 각 월별 1,000~3,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2 종교와 국정운영방향 공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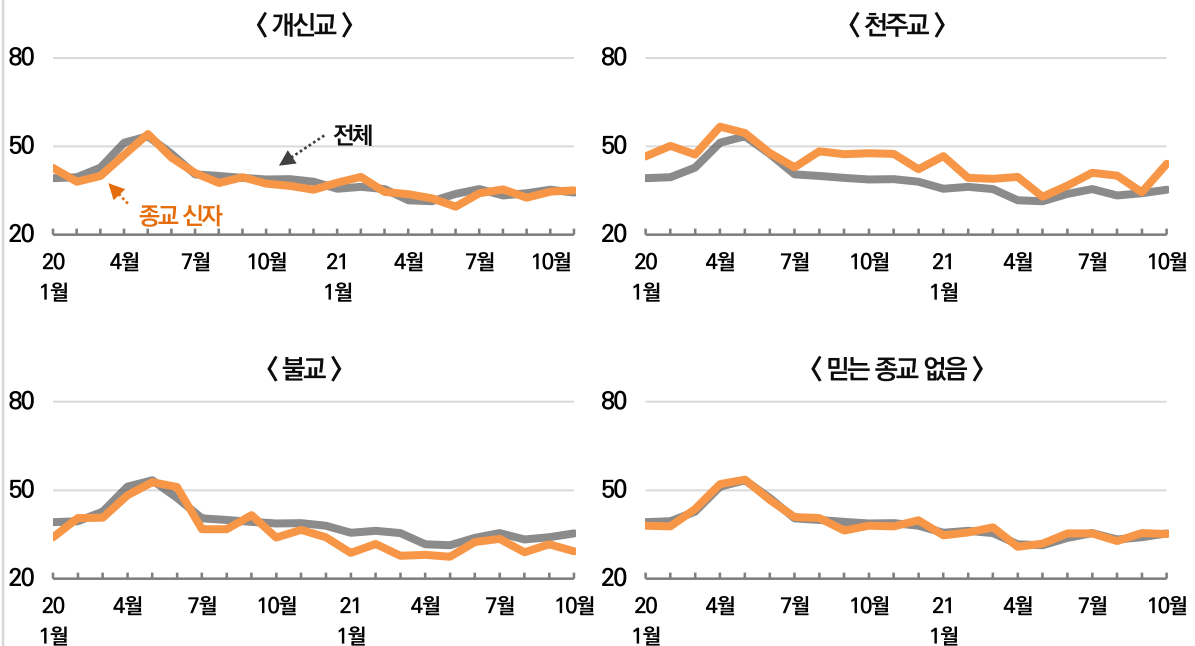
2020년 이후 국정운영방향 공감도, 국정운영평가와 유사 천주교 신자는 전체 평균보다 높고, 불교 신자는 전체 평균보다 낮음

국정운영평가와 함께 격주 1회로 물어보는 국정운영방향 공감도를 종교별로 살펴봐도, 국정운영평가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K방역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호평받던 작년 5월 53%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 현재는 30% 중반대에서 큰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다.

각 종교별 국정운영방향 공감도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개신교 신자와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의 국정운영방향 공감도는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천주교 신자는 작년 7월 이후 꾸준히 국정운영방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다. 반대로 불교 신자는 작년 7월 이후 국정운영방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다.

2020년 이후 국정운영방향 공감도, 국정운영평가와 유사
천주교 신자는 전체 평균보다 높고, 불교 신자는 전체 평균보다 낮음

(단위 : %)



질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응답. 격주 1회 1,000명씩 진행한 조사를 월 단위로 통합해 재계산.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표본수보다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 기준 각 월별 1,000~3,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20년 이후 각 종교 신자별 국정운영방향 공감도(긍정응답 비율)

(단위 : %)

조사기간		전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종교 없음
2020년	1월	39	43	47	34	38
	2월	39	38	50	41	38
	3월	43	40	47	41	44
	4월	51	47	57	48	52
	5월	53	54	54	53	54
	6월	47	46	48	51	47
	7월	40	41	43	37	41
	8월	40	38	48	37	41
	9월	39	40	47	42	36
	10월	39	37	48	34	38
	11월	39	37	47	37	38
	12월	38	35	42	34	40
2021년	1월	36	38	47	29	35
	2월	36	40	39	32	36
	3월	35	34	39	28	37
	4월	32	34	40	28	31
	5월	31	32	33	27	32
	6월	34	29	37	32	35
	7월	35	34	41	34	35
	8월	33	35	40	29	33
	9월	34	33	34	32	35
	10월	35	35	44	29	35
	11월	34	35	39	35	33

질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응답. 격주 1회 1,000명씩 진행한 조사를 월 단위로 통합해 재계산.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표본수보다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 기준 각 월별 1,000~3,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종교와 코로나19 대응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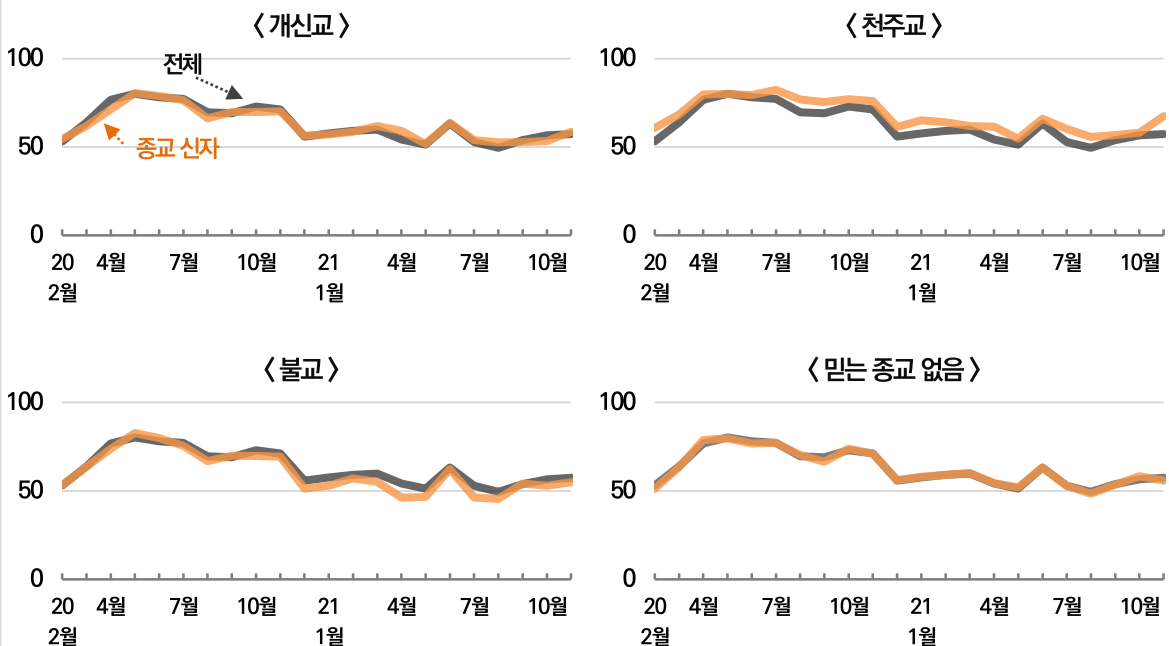
국정운영평가와 동일하게 천주교 신자는 전체 평균보다 높고, 불교 신자는 낮은 수준 개신교 신자와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전체 평균과 큰 차이 없어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며, 종교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활동과 종교모임의 참여 인원수가 제한되거나, 아예 비대면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지난 해 초 신천지발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광복절 집회, 최근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다양한 집단감염 사태에 종교기관 혹은 종교인이 관련된 것이 확인되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는 각 종교 신자별로 차이가 날까? 작년 2월 이후의 조사결과를 월 단위로 통합해 분석해 본 결과, 천주교 신자는 정부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고 불교 신자는 작년 말 이후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신교 신자와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 코로나19 대응평기도 천주교 신자는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고, 불교 신자는 약간 낮은 수준 개신교 신자와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전체 평균과 큰 차이 없어

(단위 : %)



질문: 대통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매우+대체로 잘 하고 있다' 응답의 합. 격주 1회 1,000명씩 진행한 조사를 월 단위로 통합해 재계산.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표본수보다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 기준 각 월별 2,000~3,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각 종교 신자별 정부 코로나19 대응평가(긍정응답 비율)

(단위 : %)

조사기간		전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종교 없음
2020년	2월	53	55	61	53	51
	3월	64	62	68	64	63
	4월	77	71	80	74	79
	5월	80	80	80	83	80
	6월	78	79	79	80	77
	7월	77	77	82	76	77
	8월	70	66	77	67	70
	9월	69	70	75	70	66
	10월	73	70	77	70	74
	11월	71	70	76	69	71
	12월	56	56	61	51	56
2021년	1월	58	57	65	53	58
	2월	59	59	64	57	59
	3월	60	62	62	55	60
	4월	54	59	61	46	54
	5월	51	52	55	47	52
	6월	63	64	66	62	63
	7월	53	54	60	46	53
	8월	50	53	56	45	48
	9월	54	53	57	54	54
	10월	56	53	58	53	58
	11월	57	59	67	55	56

질문: 대통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매우+대체로 잘 하고 있다' 응답의 합. 격주 1회 1,000명씩 진행한 조사를 월 단위로 통합해 재계산.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표본수보다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 기준 각 월별 2,000~3,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4 코로나19에 따른 종교활동 변화

종교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신교 신자의 종교활동 참여율 변화폭이 가장 커 불교 신자의 종교활동 참여율은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낮아

2020년 이후 종교활동 참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지거나, 참석자 수가 제한되기도 하였다. 믿음의 깊이가 깊은 신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으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예 잃어버리는 신자들도 다수 생겨나, 종교계의 우려도 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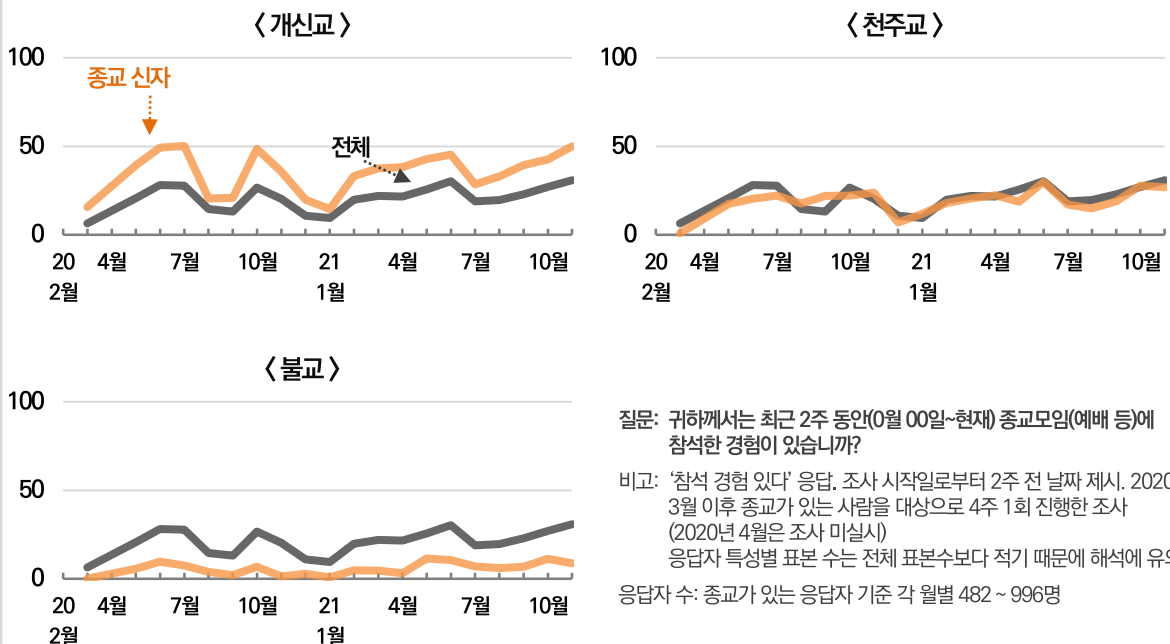
2020년 4월 이후, 응답일 기준 직전 2주동안 종교활동 참여 경험을 물었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면 종교활동 참여 경험에 있다는 응답도 높아지고, 반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거나 정부의 방역 정책이 강화되면 종교활동 참여 경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요 종교 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종교 활동에 적극적인 개신교 신자들의 종교활동 참여율 변화폭이 컸다. 개신교 신자의 종교 활동 참여율은 천주교나 불교 신자에 비해 꾸준히 높았고 특히 지난 7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인 지난 11월 조사에서는 개신교 신자의 50%가 조사일 직전 2주동안 예배 등 종교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불교 신자의 종교활동 참여율은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매달 10%대, 혹은 그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불교는 신자 10명 중 7명이 월 1회 미만, 혹은 아예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로 평소 종교활동 참여 빈도가 낮아(<https://hrcopinon.co.kr/archives/20186> 참고), 코로나19가 종교활동에 주는 영향이 다른 종교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개신교 신자의 종교활동 참여율 변화폭이 가장 커
불교 신자의 종교활동 참여율은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낮아

(단위 : %)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각 종교 신자별 종교활동 참여 경험(응답일 기준 직전 2주 간 참여 경험 '있음' 응답)

(단위 : %)

조사기간		전체	개신교	천주교	불교
2020년	3월	6	16	1	0
	4월	-	-	-	-
	5월	21	39	17	6
	6월	28	49	20	10
	7월	28	50	22	7
	8월	14	21	18	4
	9월	13	21	22	2
	10월	27	49	22	7
	11월	20	36	24	1
	12월	11	20	7	3
2021년	1월	10	15	12	1
	2월	20	33	18	5
	3월	22	37	21	5
	4월	22	38	22	3
	5월	26	43	19	11
	6월	30	45	30	11
	7월	19	28	17	7
	8월	20	33	15	6
	9월	23	39	19	7
	10월	27	43	28	11
	11월	31	50	27	9

질문: 귀하께서는 최근 2주 동안(0월 00일~현재) 종교모임(예배 등)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까?

비고: '참석 경험 있다' 응답. 조사 시작일로부터 2주 전 날짜 제시. 2020년 3월 이후 종교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4주 1회 진행한 조사 (2020년 4월은 조사 미실시)

응답자 특성별 표본 수는 전체 표본수보다 적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

응답자 수: 종교가 있는 응답자 기준 각 월별 482 ~ 996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각 조사별 1,000명, 월별 2,000 ~ 3,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
조사일시	• 격주 1회(월 2~3회)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